부광약품, B형 간염약 클레부딘 2상후기 임상

부광약품은 미국 트라이앵글과 공동으로 개발중인 B형 간염치료제 [클레부딘]에 대해 한국과 프랑스, 캐나다에서 실시된 2상 전기 임상시험을 완료하고 5월부터 국내에서 2상 후기 임상시험에 들어간다고 5월6일 발표했다.

부광약품은 4월말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후기 2상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으며, 앞으로 만성 B형 간염보균자로서 기존 B형 간염치료제로 인한 돌연변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 환자 120명의 임상참여신청을 받아 임상시험을 실시할 방침이다.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서울대병원과 경희대병원, 고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영동세브란스병원, 이대목동병원, 가톨릭의대 부속 여의도병원, 한림대 부속 강동성심병원 등이다.

클레부딘은 미국 조지아대 주중광 교수와 미국 예일대 영치첼 교수팀이 공동개발한 약품으로 부광약품은 제조권을 사들인 뒤 효능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자 1998년 트라이앵글에 해외판권을 팔아 650만달러의 계약금을 받았다.

지금까지의 임상시험에서 클레부딘은 하루에 한번 4주간 복용하면 바이러스의 양이 100분의 1에서 1000분의 1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등 기존제품에 비해 월등히우수한 효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상시험 참여 신청문의 ☎(02)828-8071-3

<Chemical Daily News 2002/05/06>